

이 날 이후로

사무엘상 16:1-13, 사도행전 13:21-23

최정웅 목사님

서론 : 언약 전달을 위한 공동체 전략

제2 RUTC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현장 속에서 우리 후대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우리 참사랑교회와 우리 교단이 꼭 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다. 언약 전달은 아빠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엄마 한 사람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로서 모두가 달라붙어야 가능한 것이다. 유대인들을 보면, 부모는 물론이고, 회당의 랍비가 돕는다. 성인식 때부터 선배와 스승이 총동원된다. 그래서 후견인이 되고, 달란트를 찾아준다. 그렇게 해서 후대를 키워서 지도자로 세운다.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특별히 세 단체와 종교단체는 후대를 자기 사상으로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뇌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백성들을 아기 때부터 이념과 사상으로 각인시킨다.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삶이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3단체는 명상운동, 복지운동, 사상운동, 문화운동을 펼친다. 복음 막는 운동을 하면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램넌트들을 지키고 살려내야 하겠다. 가정, 주일학교, 교회 전체가 연합해서 램넌트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었다. 오늘 성령강림절인데, 다윗이 여호와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케 되기를 축복한다.

1.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한 사람들

먼저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다.

(1) 첫 번째로 언약을 전달한 사람은 다윗의 증조모인 룯이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해 준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에는 계속 재앙이 반복되었는데, 나오미의 집에 이 흐름이 들어왔다. 기근에 시달리고 결국 도피를 했는데, 이방 나라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룯이 이 흐름을 깨뜨리고 새로운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이어주게 된다. 이방 사람인 룯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했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당신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간 룯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살리고, 언약의 대를 잇도록 보이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는다. 그 아들이 오벳이고, 그의 아들이 이새이며, 그의 아들이 다윗인 것이다. 가문에 계속되는 저주를 끊는 복음운동이 룯이라는 이방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이 전달된 것이다.

(2) 두 번째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해준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사무엘이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다. 사울 임금이 복음을 놓치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새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사울을 폐하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발견한 사람이 다윗이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다. 이때 사무엘이 무엇을 했겠는가? 그냥 갑자기 와서 기름을 부었겠는가? 성경에 나와 있다. 이새의 아들을 차례대로 보니까, 장남부터 사람의 외모가 든든했다.

이 사람을 기름부어 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다. 일곱 명을 다 보았는데 아니었다. ‘아들이 이뿐이냐’ 했더니,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이다. 이때 그냥 기름을 붓고 끝났겠는가? 다윗과 포름을 하지 않았겠는가? 시대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 것인가를 두고,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두고 이야기했을 것 아닌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상과 싸울 왕이 없어서 문제가 왔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했을 것 아닌가. 정말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언약 계 모실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것 아닌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마음을 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적 한을 전달했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 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오늘 참사랑 램넌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마가다 락방에 임한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란다.

(3) 세 번째 인물이 아버지 이새다. 요셉의 꿈을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담았던 것처럼, 이새는 아들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마음에 담았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면서, 조심하라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선물을 보낼 때 반드시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언약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삶 속에서 확인하도록 알려준 것이 아버지 이새였던 것이다.

이렇게 가문을 살린 조상과, 나라를 살린 전도자와,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의 언약이 원니스를 이루어서, 다윗이 램넌트 살릴 제자로 굳게 서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램넌트에게 재앙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열두 가지 문제의 실체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로 자라가지 않는가? 부모님의 제일 좋은 교육이 잔소리 교육이다. 문을 이렇게 닫으면 안 된다 하고 계속 말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는, 엄마의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느새 하게 된다. 나도 할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 “댄 곳을 다녀오면 항상 인사를 해야 한다,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다 인사를 드려야 한다.” 늘 그렇게 가르치셨다. 나는 그 덕분에 예의범절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잔소리는 신경질이 난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잔소리가 되기도 한다. 같은 잔소리 같지만, 어떤 것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후대를 후대되게 하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는데, 어떤 것은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후대를 가르칠 때 바르게 가르치게 해 달라고,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다. 신경질나는 말이 있고 고마운 말이 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막을 방법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과, 무엇이 복음이나 하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증조할머니 룯이든지, 전도자 사무엘이든지, 이새 같은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가정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오직 복음이 언약적 한으로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교회와 가정이 합심해서 램넌트를 살리라는 역사를 이루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빌립보서 1:9-10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모와 조부모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인 것은 아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전혀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 축복을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후대들을 대할 때, 제대로 언약을 전달하는 책임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오늘 장로님들께 이야기했다. 복음의 내용을 80% 이야기하고, 20%만 ‘사람답게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면 된다. 그런데 보통 반대로 한다. ‘하나님 자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20%도 안 하면서,

자기도 실천 못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잔소리로 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듣겠는가. 말하는 자기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지혜로 감당할 수 있다.

2. 이 날 이후로 다윗에게 일어난 역사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이 전달되었는데, 이 날 이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1) 사무엘상 16:13에,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모든 참사랑 가족들과 모든 후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오늘은 성령강림절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끝이다. 우리는 전부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다.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스가랴 4:6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면 되느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속이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다. 이길 수 있다. 지금 청문회가 계속되는데, 로마서 3:10이 생각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은 뭐라고 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매는 모양인데, 없다. 너무 심하게 묻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해 봐서 아니까 그런지도 모른다. (웃음) 그래도 검증은 분명히 해야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이것이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축복이다. 일곱 램뉘트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렸던 축복이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되어진다.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두 가지 면을 꼭 봐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망해버린 인간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진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 연결고리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실 것이요, 이때부터 모든 한계와 무능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해주는 증인으로 살기를 축복한다.

(2) 이렇게 성령충만을 받고 나니까,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사실 평상시다. 그 시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기능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시편 78:70-72을 보면,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정교함을 가지고 지도했다고 되어 있다. 복음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기능의 전문성으로 연결된 것이다. 양을 치는 일이 나라 살리는 준비가 되고 세계 살리는 준비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목장에서 벌어졌다. 내 일을 가지고는 안 된다, 틀렸다 하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무엇을 맡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가 지난번 3:1절 행사 때 성도들과 램뉘트들이 가서 섬겼다. 너무 추워서 참전용사들도 다 대피했다. 그런데 우리는 손을 불어가면서 그 추운 테에서 전부 정리하고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고 나왔다. 이것을 보고 다 감동을 받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세계를 살리는 효시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를 쓰고 찬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을 계속 했는데, 이게 나라 살리는 일이 된 것이다. 여기에 성령충만이 임하니까, 사자나 곰도 이길 만큼 전문성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3) 얼마나 복음을 누렸는지, 사무엘상 16:23에, 사울 임금에게 들었던 귀신이 다윗이 찬양할 때 떠나갈 정도가 되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시편 103:20-22에 보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너희 천군

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작품을 썼다. 중요한 영적 세계의 일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4)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니, 마침내 사건을 통해서 서밋으로 가는 시간표가 왔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살리고, 블레셋을 꺾고, 전 세계에 여호와와 하나님임임을 증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니까 전부 응답의 발판이 되었다.

(5) 이렇게 해서 자기 평생의 언약의 한을 성취하도록,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다윗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다. 성전 지을 재물을 모을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세울 때 해야 할 것과,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 인도할 팀까지 모두 구성했다. 온 나라가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간 것이다. 이런 응답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기를 축복한다.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면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전개된다.

결론 : 혼자 있을 때

결론을 말씀드리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만 하겠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혼자 있을 때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범죄한다.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전달하는 것이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혼자서 살아남아야 했다. 또 살아남았다. 사울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많은 전쟁을 치렀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겪었다. 그 위기 속에서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가?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을 누리는 깊은 묵상과 기도의 비밀이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기도했다고 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았다. 시편 17:3에는, 밤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했다. 시편 119:55에도,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시편 23:1에는, 하루 종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누렸다.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특히 혼자 있을 때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임마누엘을 깊이 누리게 해 주어야 한다. 후대에게 이 부분이 전달되어야 한다. 혼자서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가 한 번만 봐도 된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기도는 정말 응답되는구나.’ 이것을 알면, 아이는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다. 군대에 가도, 유학을 가도, 멀리서 사업을 해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

이 비밀을 누리니까, 다윗은 편안한 것이 아니고 평안했다.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후대에게 편안이 아닌 평안이 전달되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행복을 전달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후대의 미래에는, 언약적 한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기도의 비밀이 전달되는 오늘 하루, 한 주간에 되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언약이 누리지게 하시며,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에게 전달되었던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